

양초

고체형 양초, 겔 양초, 액체 양초, 램프 오일



01

제품에 대하여

- 조명, 종교의식, 인테리어 등에 사용된다. 향을 즐기기 위한 아로마 양초도 있다.
- 왁스에 비단실 등의 심을 심은 것으로, 불을 붙이면 녹은 왁스가 심으로 스며들어 기체가 되고 계속 연소한다. 고체형, 겔형, 액체 제품이 있다.
- 고체형은 파라핀왁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 많지만, 식물성 왁스나 동물성 왁스를 사용한 제품(일본 양초, 밀랍 양초)도 있다. 식품과 비슷한 형태를 갖춘 선물용 제품도 있다.
- 액체 양초나 램프 오일의 주성분은 유동파라핀으로 리필용 용기(수백 mL~수 L)도 판매되고 있다. 겔형 양초는 유동파라핀에 겔화제를 첨가하여 겔화한 것이다.
- 아로마 양초는 향료를 함유한다.



경구 노출

- 토하게 하지 말고 입 안의 물질을 제거하고 입을 행군다.

즉시 진료 기침 등 잘못 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약을 위한 진료

- 구역질, 구토, 설사가 있는 경우
- 증상이 없더라도 대량으로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특히 고령자의 경우)

경과 관찰 핏거나 소량 섭취한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



흡입한 경우

휘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흡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로마 양초에서는 향기에 의한 불쾌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만약을 위한 진료 불쾌감이나 두통이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눈에 들어간 경우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 즉시 눈을 씻는다.

즉시 진료

- 눈 뜨기 곤란한 경우, 눈 씻기가 어려운 경우와 콘택트렌즈가 빠지지 않는 경우

만약을 위한 진료 눈을 씻은 후에도 통증, 충혈이 있는 경우



피부 노출

만약을 위한 진료 물로 씻은 후에도 발적, 통증, 발진이 있는 경우





경구

- 무증상, 또는 경미한 소화관 자극에 의해 인두에서 상복부까지의 불쾌감, 작열감, 구역질, 구토, 설사가 나타나는 정도이다.
- 액체 양초나 램프 오일은 섭취량과 관계없이 잘못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흡입

- 휘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방치 등에 의한 기화물의 흡입은 생각하기 어렵다.
- 아로마 양초의 향기에 의해 불쾌감이나 두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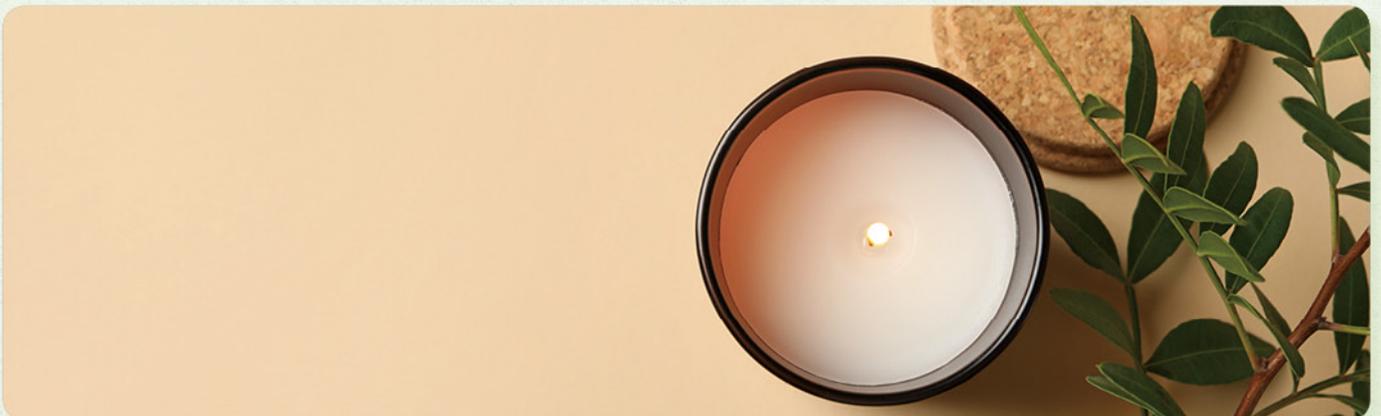
- 액체 양초나 램프 오일의 경우 약한 자극에 의한 통증 등



피부

- 액체 양초나 램프 오일의 경우 피부염, 과민증

- 양초는 무독 또는 독성이 낮은 물질로 분류되므로, 소량~중소량 섭취할 경우에는 사실상 독성이 없다. 단, 제품의 맛이나 감촉에 의해 가벼운 복부 불쾌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액체 양초나 램프 오일을 경구 섭취한 경우, 유동파라핀(미네랄오일)은 거의 독성이 없다고 여겨지나, 잘못 삼키면 1mL 이하의 섭취로도 심각한 화학성 폐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경구

【금지】 액체나 겔형 제품은 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유】 잘못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 ① **제거:** 입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뱉게 한다.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입 안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닦아낸다.
- ② **행굶:** 입을 행구고 가글한다. 가글할 수 없는 경우는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
- ③ **수분섭취:** 액체나 겔형 제품은 적극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무리하게 마시게 하여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흡입

-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눈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고 즉시 물로 씻는다.
-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쉽게 뺄 수 있으면 뺀다.



피부

- ① **제거:** 피부에 부착된 것을 제거하고 닦아낸다. 부착된 옷은 벗는다.
- ② **세척:** 비누를 사용하여 물로 충분히 씻는다.



- 잘못 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구토는 금기다. 잘못 삼킬 위험이 있으므로 위세척을 금지하는 문헌도 많다. 대량 섭취 등으로 위세척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잘못 삼키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세운 후 실시한다.

유동파라핀(미네랄 오일)

【흡수】 소화관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휘발성이 낮으므로 상온에서 증기로 흡수하는 일은 없다.

**국외(일본중독정보센터) 사고사례**

연간 건수 약 90여 건(일반 93%, 의료기관 3%, 기타 4%)

환자 연령층 1세 미만 20%, 1~5세 72%, 6~12세 2%, 20~64세 2%, 65세 이상 4%

사고 상황 소아나 치매가 있는 고령자가 잘못 삼키거나 섭취한 경우 등 97%, 잘못된 사용 3%(식품으로 착각하여 먹은 경우 등)

증상 출현 5%(구토, 기침 등)

【1986~2009년까지 24년간 파악한 소아(12세 이하)의 사고사례】

- 양초에 의한 사례 18건 중, 심각한 사례는 4건 있었다. 모두 액체 양초를 잘못 삼켜 오염성 폐렴으로 입원한 사례였다.

사례: 1세 11개월, 액체 양초를 잘못 삼켜 엄마가 구토시킨 후, 기침 등이 나타났다. 호흡곤란, 산성혈증, 폐렴이 나타났다.

【1986~2010년까지 25년간 파악한 고령자(65세 이상)의 사고사례】

- 양초에 의한 사례는 3건으로,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

생활화학제품 응급대처 가이드북

※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주세요.

